

18호. 인터뷰

베니스비엔날레팀 _김정임

김정임: 안녕하세요.

저는 서로아키텍츠 김정임이라고 합니다. 이번 한국관 전시 주제는 용적률 게임(The FAR Game)이고 국내 건축가 모두가 고민하는 현실적인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통해 한국건축의 단면이 드러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굉장히 흥미로운 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시에 대해 질문을 드리기 전에 한 분씩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성홍입니다.

저는 에이코랩의 정이삭입니다.

저는 정다운입니다.

저는 인천대학교 신은기입니다.

저는 VW 랩의 김승범입니다.

김정임: 혹시 큐레이터 간의 역할 분담이 있었나요?

김성홍: 딱히 처음 시작할 때 정한 것은 없었고 일을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다 마지막엔 또 **다 같이 공동작업을 했습니다.**

김정임: 준비 기간 5개월 동안 어느 정도 빈도로 모여 일을 하셨어요?

정다운: 12월 중순에 처음 만나 12월 말에 베니스에 다녀와 회의를 하고 나서 일주일에 두 세 번은 만났어요.

김성홍: 공식적인 회의가 마흔 다섯 번인가 여섯 번 정도이더라고요.

김정임: 많은 자료와 프로세스에 대한 것도 한국에 돌아가서 전시를 다시 하시나요?

김성홍: **이전 한국관 귀국 전시를 아르코미술관에서 해왔는데** 이번에도 돌아가서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도 보여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확정은 안되었지만 **2월 중순부터 2개월간 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임: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국 사람이 협업에 참 서투르다는 것을 느끼는데, 협업을 통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에 대한 프로세스도 알려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제가 용적률 게임인데 전체 주제는 '전선에서 알리다 (Reporting from the Front)'이잖아요. 서울의 전선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로 용적률이란 것을 제기하셨어요. 상대적으로 서울에서의 용적률 이슈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더 중요하고 건축을 규정짓는데 주목할 만한 요소로 생각하시는지요?

김승범: 한국에서 좀 더 중요한 이유는 보편성을 가지는 것에 대한 부분인데요. 처음 준비할 때는 용적률이 한국에서 특별하고 강하고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름 한국적인 특징도 있는 것 같고. 전시를 보러 오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다보니 예를 들어 이탈리아는 70~80년대 대량 주거 시대였고,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80~90년대 대량생산 시대 벽돌로 지은 2~4층 다세대 가구란 이름으로 많이 등장했던 것인데 이름과 형태 재료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이탈리아 사람들 같은 경우 그패프를 보고 '우리는 65~70년 사이 이런 붐이 있었다' 라는 말을 해주면서 공감을 하더라고요.

신은기: 용적률이라는 것은 가진 자원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보편적 현상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서 유별나게 다뤄졌던 것은 도심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

각해요.

좀더 많은 면적을 가지려는 것과 경제 개발 같은 것들이 맞물리게 되면 대량생산 즉 디자인에서도 대량생산 즉, 표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도시 풍경이 좀더 획일화 되죠. 용적률이란 현상은 어느 나라에나 있지만 그것이 나타나는 결과가 도시에 어느 정도 획일화된 풍경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베니스 같은 구도심은 대량생산이 이루어지기 전 시절에 도시의 골격이 많이 완성이 되었던 상태였다면, 한국은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전후 전 세계적인 경제 호황, 대량 생산 시기에 도시의 형성이 되는 과정이 압축적으로 한 번에 일어나면서 그런 획일화 과정이 좀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용적률이란 현상 자체는 누구나 고민했겠지만 그것이 도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도시가 일어난 현상에 대해 건축가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가 우리에게 조금 더 시각적이거나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는 어떤 우리 도시 문제라는 것으로 좀더 강력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정임: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전시에 한국 모형들이 제시된 것들을 보면 용적률이라는 제약 조건 안에서, 전시에서도 창의적인 제약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건축가들이 그것을 극복하거나 형태적으로 재미있게 활용하는 방법들을 찾아서 각자의 해법들을 제시한 것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다루신 것이죠? 도시의 전체적인 집합적인 풍경들을 이루는데 있어서 건축가들이 개별적으로 행하는 용적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작동한다고 보시고 전시를 기획하신 거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정이사: ‘긍정적으로 봤다, 긍정적인 현상으로 해석한다’라기 보다는 ‘긍정적으로 보려고 한다’라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말이 아주 조금 다른 것인데 건축가들 서른 여섯 개의 샘플은 이것 이외의 것들을 생각하면 그리 많지 않거든요. 서른 여섯 개 샘플 이전에 도에서 벌어졌던 일반적인 풍경을 우리가 아름답게 보지 않았잖아요, 다세대 다가구에서 벌어지는 행위들이. 결국 건축가들이 그것을 포착한 것인데 그 풍경 자체가 아름답지는 않지만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는 풍경이구나 라고 긍정화 해서 바라보는 것이 일단 시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 자체를 긍정화해서 바라보고 ‘여기에 질적인 부분을 더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작업한 것들이 이런 서른 여섯 개의 건축가의 작업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히 ‘좋은 현상이다’, ‘나쁜 현상이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를 바라보는 긍정의 태도가 좋은 현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신은기: 먼저 건축가들이 저기 사진에 보이는 것들을 신경을 쓰지 않았거나 어떻게든 극복해야 된다거나 하는 대상이었다면 현실을 인지하고 건축가가 우리가 받았던 교육을 통해 저런 현상을 다시 우리의 어떤 억압이나 우리가 이제 어떻게 다뤄야 할 것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아까 대량 생산을 말씀드렸었는데 저것이 다양하게 나타났던 것은 거주자, 아니면 읍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것을 다양하게 만들었다면 건축가들이 제도의 영역 내 합법의 영역 내에서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서 도시의 풍경이라고 하는 것이 획일화에서 다양화되고 양지에서 거주자에게 더 많은 선택이 이루어고 디자인 퀄리티가 좋아졌다기 보다는 일반 사람들이 비싼 집에 살지 않더라도 약간의 노력을 기울여서 더 많은 선택의 가능성을 가진 다양한 건축 환경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합니다.

김정임: 자의 반 타의 반인 것 같아요. 큰 프로젝트들이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되면서 수퍼리치들은 외국 스타 건축가들을 아무나 쓸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결국 국내 건축가들이 수용가능한 시장 수준에서의 약간 타의적인 요소도 있는 것 같고, 수요자들의 수준이 올라가면서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더 좋은 디자인을 사고자 하는 욕구도 늘어나고 사회적으로 많은 것이 얽혀있는 현상인데 앞으로 한국의 건축이나 도시 환경이 더 풍부해 질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김성홍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인데, 길모퉁이 건축에서 중간건축을 말씀해 오셨잖아요. 용적률 게임이란 이슈가 우리나라에 다양한 지역이나 다양한 스케일의 개발에도 적용된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교수님이 관심 있는 중간건축에서 좀 더 첨예한 이슈라고 보시는지요?

김성홍: 우선 용적률 게임이 가장 치열한 데는 큰 개발이죠. 고층 건물, 메가 콤플렉스 그곳이 훨씬 더 치열하고 엄청난 인센티브도 있고, **또 그 게임은 대형 건설사와 시행사가 주도했지요.** 작은 시장에서의 용적률 게임이라는 것은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직접 발코니를 텃대거나 **옥상을 늘이거나** 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작은 시장에서 건축가들이 디자인이라는 툴을 통해서 게임을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에요. **게임은 어디서나 있어 왔고 어디서나 치열했는데 다만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정익삭: 첨언을 하자면, 이것이 대규모에서도 작은 규모에서도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데 이 전시에서 큰 규모가 아닌 이런 작은 규모들이 다뤄지고 김성홍 교수님께서 중간 규모 건축에서 더 말씀하신 이유는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건축이잖아요. 일반적인 건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중산층을 위한 건물, 하이라이즈 건물을 짓는 거대 자본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는 환경을 이루는 건축물이잖아요. 그것들에서의 용적률 게임이 사회와 건축과의 프론트를 말하는 훨씬 더 유효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김정임: 대규모 개발은 주거 지역에 짓지 않기 때문에 아주 첨예한 것이 일조권 사선이거든요. 그것이 없고 도로사선이 여유 있는 상황에서 개발이어서 용적률 제한이란 것이 굉장히 창의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 규모 건축에서는 일조권 사선 같은 것과 맞물려서 더 첨예하게 드러나는 규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으로, 이번 용적률 게임이 아라베나가 제시한 '전선에서 알리다' 전체 주제와 어떤 점에서 연결되고 어떤 점에서 단절되었다고 보시는지요? 다른 국가관들 보았을 때 난민 이슈, 남미의 문제, 환경 문제 등 각국의 다른 상황 속에서 건축가들의 사회적인 역할이나 도전에 대한 리포트 그런 것을 기대했던 전체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용적률 게임이란 주제와 전체주제와의 연결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다운: 저는 전선이란 것이 예전에는 거대한 규모에서 생기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각자의 입장에서 전선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다른 국가관을 보면 구체적인 물품을 보여준다거나 하는 것들이 각자 어떻게 만드느냐의 문제, 가지고 있는 재료로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어떻게 만드느냐의 문제를 다들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서울 도시에 각자의 전선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 언제 아파트가 생길지, 언제 대형 건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필지라는 것은 합필을 하면 용적률 게임을 이겨서 커다란 건물이 생기는 것이고 그 옆에 있던 다세대 다가구는 열악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런 각자의 전선에서 주변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대답들이 각 건물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서른 여섯 개의 건물들을 어떤 방법으로 용적률 게임을 했는지에 관한 차트들이 있거든요. 증축을 한다거나 베란다를 늘린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도시를 읽는 하나의 코드인 것 같아요. 베란다를 늘린다거나 조그만 마당을 갖는다던가 하는 각 지역의 특색이 각자의 전선을 해결하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김정임: 여기 전시된 용적률 게임 서른 여섯 개 예를 유형별로 선정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용적률 이슈들을 재미있게 다룬 프로젝트들을 램덤으로 찾아서 전시를 하신 건가요? ?

신은기: 처음에는 규모를 많이 보았어요. 김성홍 교수님 중간 건축에 나오듯이 몇 층 규모 몇 제곱미터 이하, 몇 층 규모 건축가들의 작업하는 중간 규모의 건축을 선택팅을 했고요. 그 중에서 사선 제한 등 전략들이 명쾌하게 보이는 것들로 확장시켜나갔어요. 논문을 쓰듯이 유형을 정했다거나, 아예 랜덤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규모 선정을 하고 스토리를 보고, 이야기를 확장시켜서, 예를 들면 안기현 교수님 설명에 높이를 확장, 높이를 올리는 것은 작은 규모에서는 어려웠어요. ...

정익삭: 몇 가지 프로젝트를 보면서 이 안에 용적률 게임이 있나 하는 것을 살펴 보았어요. 몇 가지 유형을 뽑아 살펴보니 용적률 게임이 있는 것도 있었고 없는 것도 있어서 분류해 나갔어요.

안기현: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최근 매체에서 주목한 건축가들을 보았는데, 그러다 보니 젊으신 분들이 많았고, 2000년대 후반부터 지어진 건물들이 균을 이루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분류하는 기준이 없었는데 계속 모으고 한국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선택하면서 중간에 겹치는 부분은 제외시킨 것도 있고 새로운 것을 더 찾기도 해서 서른 여섯 개가 되었죠.

김정임: 리서치를 하다보니까 사회적인 현상이 보였을 것 같아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다른 현상들이 보였을 것 같은데 여기 계신 큐레이터들이 전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거나 발견하신 주제가 있으신가요?

안기현: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런 이야기가 김성홍 교수님이 말씀하신 중간건축, 길모퉁이 건축, 용적률 게임, 그리고 최근 황두진 선생님 '무지개떡 건축' 등 이중 일반 주거 지역에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지어지면서, 지어지는 건물들의 타이포로지나 거기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건축가들이 하는 전략, 작은 규모이다 보니 큰 사무실이 아닌 작은 규모의 사무실이 더 적합해서 잘 대응해서 디자인 하는 것이 그런 건물들이 더 많아지면서 더 좋은 도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희가 여러 가지 조사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최근 이슈가 된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된 것도 건축이 새로 짓는 것 투자 대상이 되다보니 사회적인 현상 혹은 젊은 건축가들이 살아가는 환경에서 모여서 건축 설계비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생존 전략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익삭: 아까 개별성하고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서른 여섯 개의 작업이 개별적인 건축가들의 작업이고 이것이 어떤 풍경들이 도시적으로 과연 건강한 풍경을 만드는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잖아요. 아까 정다운 선생님도 말씀했지만 개개인의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들이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IMF 이후에 시장 자체가 먹고 사는 것을 더 신경써야 하고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는 없어도 생존하기 위해 어쩌면 그 시장으로 들어간 것인데 그것 자체가 마치 거대한 사회적 운동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개별적으로 먹고 살려고 하다보니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벌어져서 우리가 인지할 정도로 동일한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시대적인 과제라면 너무 무겁지만, 담론을 벌일 충분한 시기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전시 이후에 한국 건축계 내에서든, 사회적으로든 좋은 이야기의 시작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신은기: 저는 설명하다 어느 영국 기자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재미있다. 궁금한 것은 건축가들이 **맥시마이즈**를 하고 있는데 이게 끝까지 가면 다음에 무엇을 할 거냐”를 물어 보시더라고요. 그 질문을 받고 순간 놀랐는데,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 법이나 제도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았더라고요. 사회가 무언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변해왔고

김정임: 사선 제한이 없어졌잖아요.

신은기: 그렇게 뭔가 변해왔고, 거기에 대해 거주자들이나 건축가들이나 클라이언트는 계속 대응을 해온 그들 사이의 대화였더라고요. 영국 기자분의 맥시마이즈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질문 이전에 결국 이 전시는 제도와 건축가들과 클라이언트 이들 사이의 대화였다 였던 것 같아요. 건축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제도가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도가 거대하게 바뀐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어떤 사회적 흐름의 변화가 있고 제도가 바뀌어 나갈 것이고 건축가들은 뭔가 대응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새로운 형식의 대화가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연구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그런 대화의 양상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한다거나 따라가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정다운: 저도 비슷한 측면에서 제도와 비슷한 것인데 예전에 비해 건축주가 많아진 상황인 거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있는 집에서 살았는데, 건축가들을 찾아가고 마당 다락 건축 용어들이 더 보편화 될 것 같아요. 재료는 무엇 무엇으로 해주세요. 지붕은 어떻게 해주세요. 보편적인 건축 언어가, 건축에 대한 용어가 어렸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매뉴얼 따라서 집을 짓는 상황이 된다면 좋을 거 같아요. 일괄적으로 보는 도시 풍경이 좋아야 된다는 말은 서울에서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좋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러 이런 것을 선택하겠다 까지 먼저 가야되는 것 같아요.

신은기: 건축주 분들이 “예쁘게 지어주세요” “어디 같이 지어주세요” 이랬다면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김정임: 리빙 퀄리티와 밀접하게 닿아 있는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김승범: 이제까지 잡지에 실린 건축가들 작품을 보면 자기 글을 써요. 그런데 제가 ‘작품’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작품이라는 것은 자신만의 특별한 무언가 들어갔으면 하고 그런 것이 들어가도록 건물을 만드는 것이 모든 건축가가 노력하는 법인데, 방식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까지는 건물이 개별적으로 작품이 수사되고 표현되어 왔다면 이번 전시에서는 개별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는 건물을 이야기 할 때 개별적인 수사로서의 건축이 아니라 한 번 사회적인 이야기를 곁들여서 클라이언트와 제도의 변화 사이에 어떤 파워 게임을 한 번 이야기 해보자. 똑같은 현상을 두고 보는 방식을 바꿔본 것이죠. 그래서 저 건물들을 모두 다 하얗게 만들어서 “이런 방식으로 건물을 한 번 봐 주세요”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건물 하나 하나를 보았을 때는 어떤 특징은 있지만 그게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모아 놓고 보니 이것이 한국 건축의 특징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 열 명 모여 있고, 일본 사람 열 명 모여 있고, 중국 사람 열 명 모여 있다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국 사람들 집단이구나’ 구분해 낼 수 있는 것처럼 일종의 사선 제한이 만들어 내는 그 무엇 혹은 그 사이에서 무언가 법규와 제도와 용적률과 싸워가는 방식들이 우리 나라 건축의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신은기: 지금까지 한국적인 아이덴티티는 거창한 것에서 찾았잖아요. 물론 그런 한국적인 것이 중요하지만 한 쪽에서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디선가 자연스럽게 한국적인 아이덴티티가 생겨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는 것이 좋았어요.

정익삭: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건축가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한 가지 재미있었던 것은 전시의 한 커다란 축이 80~90년대 많이 지어졌던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그런데 저쪽 아티스트 방에 들어가서 그 작품의 대상이 된 건물들은 80~90년대 많이 지어졌고 훈련받은 건축가가 지은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주옥 보고 버내컬러(vernacular)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말하자면 ‘토착적인’이란 뜻이죠. 보통 이제까지 코리안 버내컬러, 토착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한옥을 많이 떠올렸는데 어느 순간 저런 건물들이 30~40년 지나고 나서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의 무언가 토착적인 것이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김정임: 저도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건축들, 파괴 같은 곳을 가도 건물이 개별적으로 튀는 것이 아니라 집합적 풍경을 이루는데 그것을 보통 아름답다 라고 보잖아요. 건축가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농담처럼 모형을 두 가지 타입으로 만들어 두었잖아요, 그런데 이 쪽(?)이 훨씬 나은데? 그런 얘기를 하며 다녔는데...(웃음) 결국 그것이 어떤 요구에 의해서인지도 알고 어떤 욕심이나 의욕에 의해서인지도 아는데 아무튼 자기 것이 튀어 보여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튀는 것들이 계속 가치있게 되는 풍경에서 무언가 나중엔 만들어야지요. 10년 20년 축적되고 나서 그 뒤에 보면 그것이 집합적인 풍경을 나타낼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런 부분 재미있게 보았어요.

정다운: 모양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한국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김정임: 한국 문화가 다 그런 거 같아요. 일본과 대별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개별적으로 굉장히 튀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다 있는!

정다운: 내가 돈을 들여 집을 짓는데 하는...

김정임: 건축주들도 그렇고, 그런게 한국적인 것 같다는 것에 동의해요.

김정임: 전체 국가관이나 아르세날레관을 봤을 때 전세계적으로 빈부의 양극화, 국지적 전쟁이라든지 자연 재해로 인한 난민 상황들, 환경 파괴, 에너지 고갈 등 여러 이슈들을 다루는데, 막연하게 알고 있는 서구 몇몇 나라들의 상황이 아니라 국가별로 얼마나 다양한 이슈에 직면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건축가들이 얼마나 앞에서 여러 해법들을 제기하고 고민하고 있는지 알게 된 계기였습니다. 이번 한국관 주제와는 별도로 한국 사회 또는 한국 건축이 당면한 어떤 시급한 이슈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모두: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요.

김정임: 건축업에 대한 이슈도 있잖아요. 건축가의 생존 문제도 있잖아요.

김승범?: 이번 전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건축가의 생존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저는 이번 전시와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관람객들에게 설명을 할 때 사진을 보여주며 이것이 우리의 건축가들이 한국의 도시 조건 속에서 하는 생존 싸움이라고 표현해요. 2000년대가 지나면서 큰 사무실이 구조 조정이 되고 그 사람들이 다 밖으로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살아 남아야 해요. 어떻게든 일감을 찾아내야 하는데, 그래서 저런 시장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 시장, 그 게임에 들어갔으면 그 게임의 룰을 지켜야 하는데, 그 게임의 룰은 일단 비슷한 설계비에 건축주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면적을 얻고자 하는 그것을 맞춰주지 않으면 클라이언트가 될만한 사람이 왔다가 떠나버리고 바로 일이 없어지죠. 기본적으로 맞춰주어야 하는 조건이 비슷한 설계비와 공사비, 거기에 최대한의 면적이예요. 그것을 맞추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열심히 무언가 하려고 했던 것이 사라지는 것 같잖아요. 거기에 자기만의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과정에서 재미있는 공간들, 우리 도시를 획일적이지 않고 조금은 다르게 만들어 주는 공간들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은기: 전시를 보면 이번에 우리는 시장을 다봤는데, 어떤 곳은 환경을 다루기도 하고, 어떤 곳은 근원으로 돌아가서 ‘올드패션드’라는 주제관은 빛이라든가 하는 것을 다루기도 하더라고요. 결국 건축가들이 그런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다 재미있었어요. 그 중 주제관 하나에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그것도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도가 얼마나 사람들을 보호해주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사람들을 왜곡 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었다고요. 우리 주제가 건축가들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제도 그 안에서 모색을 해나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다른 바깥에서는 이 제도라는 것이 정말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 건축가들이나 관련 **(연구자가 말하고 있더라고요.)** 세부적인 것으로 오래된 주거, 임대 아파트를 리노베이션하는 과정에서 제도라는 것이 과연 정말 맞는가를 다루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같은 프론트 라인을 다룬다고 해도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는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중요한 이슈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다루는 것들이 모두 건축의 중요한 이슈라 생각하긴 하지만 같은 이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바라보는 시각을 다양화해서 그것을 접근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기현?: 저희가 건축을 배울 때 건축가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공공에 어떤 책임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배워왔고 선배들도 그런 모습을 강조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 안에서 공공이라는 것보다는 당면한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것을 맞추는, 건축가라기 보다 디자이너로서 **(역할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선배들과 젊은 사람의 생존 과정에서의 이야기가 다른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어떻게 잘 소통이 될까하는 이야기가 작게 보면 그렇고,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라는 게 전세계가 처한 글로벌 문제니까 그런 현상 속에서 과연 건축가라는 게 과연 예전에 생각하던 것만큼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역할인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계속 제기될 것 같아요. 백승우 사진 작가가 한 말 중에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이 더 이상 자신이 포토그래퍼가 아닌 것 같다, 사진 작가라는 것이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사진기라는 것이 너무 보편화되어서 이제는 누구나 다 사진을 찍고 작품처럼 만들 수 있는데 사진 작가라는 사람이 아주 작은 차이로 나타내는 구도나 기술을 가지고 과연 ‘작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면에서 사진 작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하는지 그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데, 건축가도 똑같이 가구디자이너나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건축의 영역은 아니라 무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공공이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용어가 생기든, 젊은 건축가이든 나이든 선배 건축가이든 같이 앞으로 이야기 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하는 생각인데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김정임: 정말 **리포트 전**이 필요한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에 동감하면서도 우리나라 건축업계가 당면한 것 중의 하나 극복해야 할 것이 사대주의예요. 동네 건축가 등 다양한 레벨에서 좋은데, 문제는 이제는 대형 건물을 한국 건축가 또는 한국 건축 회사에서 단독으로 설계한다는 게 상상이 안 되는 어느새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가 한국전력 부지를 개발할 때 한국에서 그걸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회사나 건축가가 있을까를 저도 못 믿겠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 큰 건축 회사들이 자본이 있기 때문에 기술도 축적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텐데 너무나 쉽게 그 자리들을 외국 회사들에 내주고 자신들은 그저 심부름꾼 역할을 자처하면서 한국 건축계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저변에서 활동하는 건축가가 굉장히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그것만 해서 안 되거든요. 큰 스케일의 일도 다룰 줄 알고, 작은 회사들이 네트워킹해서 협업하는 기술들을 개발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어요. 그럴 때도 디자인 문제가 아니라 일의 수행 능력, 결과물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내는 그 능력들을 계속 트레이닝하는 과정을 못 갖게 되는 것이 조금 지나면 아주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게 아쉬운 부분들이고 주제와는 다른 이야기이지만 한국 건축계를 보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점에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면 큐레이터 안에서도 세 분이 교수이시죠. 프랑스관을 보면서 건축 교육이 프론트에서 해야하는 일에 대한 글이 있었는데, 건축학자이자 교육자로서 교육 현장은 프론티어로서 무엇을 다루어야하고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앞으로 해야된다고 생각하는지 교수님이 아닌 분도 말씀해 주세요. 학교가 실험의 장으로서 가장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론상으로는 많이 이야기하고 생각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스스로도 반성을 하면서 회의도 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교육이 먼저 바뀌어야지요.

많이 달라졌지만 저만 해도 아직도 마스터 빌더로서의 아키텍트에 대한 꿈은 어느 한 쪽에 계속 남아 있나 봐요.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피할 수 없는 거부감이 생기고 ‘리포지셔닝’ 말로는 하지만 어떤 유전자에서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점에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홍: 우리가 용적률 게임을 다루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전통적 의미의 건축의 주제가 다른 쪽으로 넘어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전히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더 풍부하게 또 다양하게 만들고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뭔가 자극을 받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건축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 거죠.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가 있는 것이죠.

좋은 건축을 하기 위해 기본에 충실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기본이 약하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하는 것을 기록하지 않고 할 때마다 각개 전투하고, 그것이 하나의 데이터로 묶여서 축적되지 않고, 할 때마다 사람들도 다른 것 같아요. 감각과 치기를 통해서 재미있는 것을 만들어내지만 그것이 무르익어서 깊이와 울림이 있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직 많지 않아요. 그것들이 한국 건축의 숙제인 것 같아요. 교육에서 요즘 융합을 많이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융합이라는 게 자기 것이 없을 때 못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배운 서양의 근대건축이 현대 건축의 가장 주요한 문법과 어휘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충분히 소화하면서도 자신의 것을 만들어야겠지요. 그런데 자신을 둘러싼 현재와 현실에 대한 자존감이 없으면 깊이가 있으면서 정체성을 갖춘 것을 만들기 어렵죠. 그런 점에서 새로운 세대의 건축가들은 국제적인 동향에-축수를 대고 있어야 하지만 그것보다 자신의 것을 깊이 들여다 봐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이 반드시 과거를 들여다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현실 속 밑바닥을 깊이 들여다 보고 거기에서 자존감을 갖고 만들어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이 사회적으로 축적이 되도록 하는 공통의 숙제 같아요. 단지 건축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건축 하나만을 가지고 건축의 질이 좋아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최근 건축의 품질이 좋아진 것은 건축가가 잘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고 제품과 재료가 좋아져서 수준이 올라간 것도 있지 않을까요? 학생들도 지금처럼 어렵다고 느낄 때 일수록 기본을 익히고 다져야 하는 것이 가장 먼저가 아닌가 싶어요.

김정임: 교수님이 말씀하신 점에서는 한국관 주제도 우리 도시가 처한 상황이나 그 자리에서 우리 것을 깊이 들여다 보고 그걸 통해서 자존감도 가질 수 있는, 그걸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계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을 깊게 관찰하는 그런 점에서 어떤 시발점이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이삭: 당면한 과제와 다음 세대의 교육과 관련된 문제가 같은 이야기 같아요. 당면한 문제는 젊은 건축가에게 해당될 수도 있고. 학교에서 지역적인 것을 가르치지 않는데 어떻게 지역적인 건축을 하니까.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누가 그것을 파헤쳐서 가르치느냐. 그런 교육의 풍경을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꼭 이 전시를 빌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더라도 다세대, 다가구를 가치있는 대상으로 바라보게 지도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부족한 모습들을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의지를 전달한다거나 하는 교육의 과정이 사실은 별로 없잖아요. 그것들이 좀더 풍부해지지 않고서든 한국적이고 지역적이고 한반도적이고 국가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관련된 중요한 가치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건축을 하는 것부터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주는 것 자체가 잘 정해져야 하는 것 같아요. 전시의 서른 여섯 개가 신축 건물이었어요. 다세대 다가구의 집단적 현상에서 뭔가 긍정화해서 나온 현상은 맞지만 결과적으로 저걸 부수고 지은 것이거든요. 저 자리에 있던 것을 부수고 지은 것이예요. (부수고 지은 건물들이) 집단적 풍경으로서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연남동 가로 길을

걸어갈 때 느끼는 것인데 하나씩 부서질 때마다 마치 이가 빠진 것처럼 풍경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과연 바뀐 풍경들이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다시 이 벽돌 건물처럼 훌륭한 가로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경관적 풍경, 집단적 풍경으로서 아름다울 수 있을 지 거기에 대한 확신은 안 들어요. 물갈기한 화강석이 나중에 집단적 풍경으로 만들어질까, 우리가 다시 그것을 리노베이션의 대상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을까, 그것들은 시대적인 풍경으로서 분명히 영향력이 있는데 지금 만들어낸 환경 자체가 그렇게 될 거란 확신이 크게 안 들어요. 그렇다면 대량으로 생산된 어느 시기 이후 어디서나 발견되는 것을 다듬으면서 진행되는 개발의 단계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없는 것이잖아요. 다듬으면서 풍경을 진화시키려는 의지가 있어야 할 것 같고 건축가들 힘만으로는 될 수 없으니 사회적인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런 전시도 하는 것이잖아요. 책이나 언론 등 사회적인 파급력을 가져서 우리 모두가 동의하건대 우리가 이 풍경을 좋은 것으로 긍정하자 이것을 서서히 진화시켜나가자라는 동의는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쓰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해야지 언제까지고 새로 짓는 것에 대한 이슈에 파묻혀 있으면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김정임: 이번 전시에서 서른 여섯 개의 건물에 대한 것도 좋았지만 개인적으로 정연두 작가나 백승우 작가의 작업도 좋은 전시의 일부였다고 생각해요.

정다운: 대학 교육에서 학부생들이 디자인 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아이들이 정답에 목말라하는 것 같아요. 정답은 없는데 가르치는 분도 이쁜 디자인에 대한 감각이 있으시잖아요. (학생들) 서투고 투박한 디자인에 대한 크리틱에 상처받죠. 정답에 대한 강요가 덜 해지면 좋겠고 정답에 대한 강요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면 획일화된 다세대의 풍경, 그런데 다 달라요. 베니스의 건물 아름답다, 그런데 다 똑같아요. 아파트가 성냥갑이다, 그런데 살기는 좋고 다들 꾸밈만큼 꾸미고 그래요.

신은기: 교육에서 중요한 게 실제적으로 문제를 직접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답은 둘째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은 문제도 없어요. 학생들이 풀어야 할 문제도 내주는 과제, 몇 제곱 미터의 학교를 설계한다, 그러면 사이트 분석하고 예쁘게 앉히고 하는 표준화된, 학생들은 나름 개별적으로 디자인 한다고 하지만, 프로세스 자체가 표준화 되어 있고 문제도 표준화 되어 있고 다루는 대상도 표준화 되어 있고, 굉장히 중성적이에요. 지역적인 가치도 없고, 지역적인 가치가 있다고 하면 지역적인 가치를 말하는 방식도 표준화 되어있어요. 어딘가에서 늘 말하는 단어들. 만약 정이삭 소장님 생각 같이 다세대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면 일상에서 왜 그것이 중요한지 말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고, 나는 그것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그런 일련의 논리적인 사고와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서, 주장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성홍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에 충실해서 일상에 굉장히 디테일한 눈을 가져야 되고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김정임: 아까 사진 작가 말씀도 하셨지만 사진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대상인데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거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느냐에 대한 문제이잖아요. 건축도 그런 것 같아요. 펼쳐져 있는 것 안에서 무엇을 자신을 집어내서 문제화 하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것이냐. 학교 교육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다뤄져야하지 않는가. 그런데 학교에서 저도 마지막 패널로 프린트 되어 나온 시각적인 것에 좌지우지 돼요. 전반적인 문화가 깊게 들여다 보고 평가하는 그런 방향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총괄 큐레이터로서 마지막으로 김성홍 교수님께서 한 말씀해주신다면요?

김성홍: 짧은 시간이었는데 우리가 팀워크를 이루어 일을 한 것이 소중하고, 여기서 작은 이야기들이 조금씩 파생되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정임: 바쁘신 중에 시간 내어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셨지만 한국 건축의 어떤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전시도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